



##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 한농연중앙연합회 서정의 중앙회장, 노무현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농협개혁 강력히 제기

지난 2월 22일 서정의 중앙회장은 농어민단체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협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DDA 개도국 지위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체금리를 2~3%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농어민단체장과 노무현 대통령과 간담회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서정의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 등 농민단체 24명을 비롯해 어민단체장 5명 등 총 30명의 농어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통로를 통해 농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도 농민단체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 WTO농업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막연한 낙관은 하지 않을 것임 ▲ 농림부가 힘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직접 챙기고 조정하겠음 ▲ 농협 개혁문제는 농민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겠음 ▲ 정부는 농민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지만, 농민도 스스로 노력해야 함 이라고 밝혔다.

### 한농연 시·군회장단, 국회 의원회관 방문!! 한농연 중앙·각도연합회 한겨레신문에 한·칠레 FTA반대 연속 광고 게재

지역구 의원에게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쌀생산조정제 및 수매가 인하 반대 서명 받아

지난 2월 11일 한농연 시·군회장 100여명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또한 쌀생산조정제 및 수매가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농민들의 여론을 전하고 쌀생산조정제 및 수매가 인하 반대 서명도 받았다.

한편 한농연중앙임원은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한·칠레 FTA 비준 거부와 쌀생산조정제 및 수매가 인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란에 한농연중앙연합회와 각도연합회 명의로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협상!! 한·칠레 FTA 비준 반대”, “쌀관세와 유예 농업개도국 유지” 등을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2월 17일 현재까지 한·칠레 FTA 비준거부 서명운동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88명이며, 쌀생산조정제 및 수매가 인하 반대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72명이다.

**한·칠레 FTA 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현황**  
(2003년 2월 25일 현재 총 88명)

경기 13명	배기선(부천 원미읍) / 최선영(부천 오정) / 정상선(평택읍) / 강성구(오산·화성) 김항식(하남) / 이해구(안성) / 정병국(가평·양평) / 박종우(김포) / 이규택(여주) 남궁석(용인갑) / 이희규(이천) / 임태희(성남분당을) / 고흥길(성남분당갑)
강원 8명	최연희(동해·삼척) / 김용학(영월·평창) / 이용삼(화천·철원·양구)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인제) / 김택기(태백·정선) / 최돈웅(강릉) 이창복(원주) / 유재규(홍천·횡성)
충북 4명	신경식(청원) / 심규철(보은·옥천·영동) / 정우택(진천·음성·괴산) 송광호(제천·단양)
충남 9명	전용학(천안갑) / 함석재(천안을) / 원철희(아산) / 이완구(천양·홍성) 문석호(서산·태안) / 정진석(공주·연기) / 이인제(금산·논산) / 김학원(부여) 송영진(당진)
전북 4명	장성원(김제) / 김원기(정읍) / 이강래(남원·순창) / 김태식(완주·임실)
전남 9명	정철기(광양·구례) / 천용택(강진·완도) / 이정일(해남·진도) 이낙연(함평·영광) / 배기운(나주) / 김충조(여수) / 김효석(곡성·광양·장성) 김경재(순천) / 김옥두(장흥·영암)
경북 16명	권오을(안동) / 김광원(봉화·울진) / 김성조(구미) / 이상배(상주) 신영국(문경·예천) / 박재욱(경산·청도) / 주진우(고령·성주) / 이인기(칠곡) 정창화(의성·군위) / 김찬우(청송·영양·영덕) / 박헌기(영천) / 박시균(영주) 임인배(김천) / 김일윤(경주) / 이병석(포항북구) / 이상득(포항남구·울릉)
경남 14명	김학송(진해) / 김동욱(통영·고성) / 이방호(사천) / 김용갑(밀양·창녕) 윤한도(의령·함안) / 박희태(남해·하동) / 이강두(거창·함양) 김용균(산청·합천) / 하순봉(진주) / 이주영(창원 을) / 김종하(창원 갑) 김기춘(거제) / 김영일(김해) / 나오연(양산)
제주 3명	현경대(제주) / 양정규(북제주) / 고진부(서귀포·남제주)
특광 6명	이우재(서울 금천) / 이양희(대전 동구) / 송석찬(대전 유성구) 권기술(울산 울주) /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비례대표 2명	김영진 / 임진출

**쌀생산조정제 및 쌀수매가 인하반대 국회의원 서명현황**  
(2003년 2월 25일 현재 총 72명)

경기 8명	강성구(오산·화성) / 이해구(안성) / 이규택(여주) / 남궁석(용인갑) 이희규(이천) / 임태희(성남분당을) / 고희길(성남분당갑) / 김항식(하남)
강원 7명	최연희(동해·삼척) / 이용삼(화천·철원·양구) /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인제) / 최돈웅(강릉) / 유재규(홍천·횡성) / 한승수(춘천) / 이창복(원주)
충북 8명	신경식(청원) / 심규철(보은·옥천·영동) / 송광호(제천·단양) / 이완구(청양)
충남 7명	함석재(천안을) / 문석호(서산·태안) / 전용학(천안갑) / 김학원(부여) 송영진(당진) / 정진석(공주·연기) / 이인재(논산·금산)
전북 4명	장성원(김제) / 정세균(무주·진안·장수) / 이강래(남원·순창) 김태식(완주·임실)
전남 8명	천용택(강진·완도) / 이정일(해남·진도) / 이낙연(함평·영광) / 김충조(여수) 김호석(곡성·광양·장성) / 김경재(순천) / 김옥두(장흥·영암) 정철기(광양·구례)
경북 16명	권오을(안동) / 김광원(봉화·울진) / 김성조(구미) / 이상배(상주) 신영국(문경·예천) / 박재욱(경산·청도) / 주진우(고령·성주) / 이인기(칠곡) 정창화(의성·군위) / 김찬우(청송·영양·영덕) / 박헌기(영천) / 박시균(영주) 김일윤(경주) / 이병석(포항북구) / 이상득(포항남구·울릉) / 임인배(김천)
경남 14명	김학송(진해) / 김동욱(통영·고성) / 이방호(사천) / 김용갑(밀양·창녕) 윤한도(의령·함안) / 박희태(남해·하동) / 이강두(거창·함양) 김용균(산청·합천) / 하순봉(진주) / 이주영(창원 을) / 김종하(창원 갑) 김기춘(거제) / 김영일(김해) / 나오연(양산)
제주 1명	고진부(서귀포·남제주)
특광 2명	원희룡(서울 양천갑) / 권기술(울산울주)
비례대표 1명	임진출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도연합회 사무요원 워크숍 실시**

지난 2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도연합회 사무직원 워크숍이 한농연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 상황을 공유하고 2003년 한농연 사업계획을 토론하였으며, 한농연 조직발전에서 사무요원들의 역할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 그 밖의 농업계 소식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전국농민대회」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

경남,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한농연 회원들도 버스로 상경

지난 2월 14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전국농민대회」가 전국 농민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쌀 수입개방 불가피론을 유포하여 수매가를 2% 인하, 민족의 생명줄 마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맡기려하고 있다”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단 ▲쌀수매가 3%인상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철회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WTO협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경복궁 사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집회가 끝난후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에게 농민단체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칠레 FTA는 국익전체를 생각해야 하며, 도시지역 의원들이 있어 당론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농민 200여명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농성을 벌였다.

한편 독립공원에서 경복궁 사거리까지 거리행진과 한나라당 민주당사 앞 농성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때문에 다수의 농민과 경찰이 다쳤으며, 비디오 촬영을 하던 경북 의성 농민이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에 눈을 맞아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시민·종교·노동·농민·사회77개 단체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집회근절과 황재윤 농민 실명사건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켰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 한여농중앙연합회 3·4대 이·취임식 개최!!

지난 2월 12일 한여농중앙연합회는 한농연회관 대강당에서 3·4대 중앙회장 및 중앙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4대 임원으로 취임한 중앙임원은 김인호 한여농 중앙회장(연임), 허기옥 수석부회장(연임), 강영오 정책부회장(연임), 박희자 사업부회장(前 충북도연합회장), 하금수 대외협력부회장(前 충남도연합회장), 이경애 감사(前 충남도연합회감사), 권미숙 감사(前 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이다. **한농연**